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I. INTRODUCTION**

**도입**

- A. Zechariah 7-8 calls us to encounter the zeal of God for His city Jerusalem, His people, and the supremacy and glory of His Son who will be worshiped by all nations (8:20-23; 14:16-18). When we see this as the ultimate purpose and direction of history, it is logical to fully pursue it now.

스가랴 7-8 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위한 그분의 열심과 대면 하도록,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부터 경배받으실 그의 아들의 우월함과 그 영광과 대면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 (8:20-23; 14:16-18). 우리가 이것이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며 방향이라고 볼 때, 지금 이 실체를 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인 이치이다.

- B. The whole book of Zechariah is about Jerusalem, including Zechariah 7-8, which beckons us to seek for the fullness of God's destiny for her, instead of living spiritually disconnected from it.

스가랴 7-8 장을 포함한 스가랴서 전체가 예루살렘에 대한 책이고, 이 스가랴 7-8 장은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분리되어 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질것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 C. A primary theme in Zechariah 7-8 is **how to respond** to the message of grace in Zechariah 1-6. The zeal and mercy of God seen in Zechariah 1-2 reach great heights in Zechariah 3-4 when He freely and fully cleanses Israel's leadership and promises to anoint and give them supernatural resources to lead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vival to remove their enemies (Zech 5-6).

스가랴 7-8 장의 주요 주제는 스가랴 1-6 장에 있는 은혜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스가랴 1-2 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과 자비는 스가랴 3-4 장에 이르러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데, 3,4 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막힘없이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제거 (슌 5-6 장)하기 위해, 그리고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부흥을 이끌수 있도록 기름부으시고 초자연적인 자원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때이다.

- D. The two chapters of Zechariah 7-8 go together in a special way much like the other two-chapter units (Zech. 1-2, 3-4, and 5-6). Again, Zechariah 7-8 informs Israel how to respond to the grace of God that freely and fully cleanses and anoints them as described in Zechariah 3-4, so that they walk in the fullness of God's promises as set forth in Zechariah 1-2, and in the final removal of all their enemies as seen in Zechariah 5-6. This results in all nations worshiping Jesus (8:20-23).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이전의 두 장 묶음들이 그러했듯이 (스가랴 1-2 장, 3-4 장과 5-6 장), 스가랴 7-8 장, 이 두 장은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묶여 있다. 다시 말하자면, 스가랴 7-8 장은 이스라엘에게 스가랴 3-4 장에 묘사된 막힘 없이 완전하게 씻으시고 기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서, 이스라엘이 스가랴 1-2 장에 제시된 하나님의 충만하신 약속 가운데 거하고, 스가랴 5-6 장에 보았던 적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8:20-23).

- E. The Lord gave Zechariah a message about His zeal, burning desire, for His people and purpose. Zechariah was to motivate the people with this revelation of God’s heart (8:2), with promises of full restoration if they obeyed (8:3-23) and warnings of judgment (7:12-14) if they refused Him.

주님이 스가랴에게 그의 백성과 목적을 향한 주님의 열심과 불타는 소망에 대한 메세지를 주셨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와 (8:2), 그들이 순종할 때 주시기로 약속된 온전한 회복과 (8:3-23), 그리고 만일 그들이 주님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7:12-14)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했다.

- F. He wants us to see His zeal for us and respond with a zeal that loves Him with all our heart (Mt. 22:37). The revelation of His heart and blessings are meant to woo us into wholeheartedness.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열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열심에 반응하기 원하신다 (마 22:37). 그분의 마음과 축복의 계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

- G. Eighteen years earlier, Israel returned from Babylonian captivity to walk in her national promises, specifically related to rebuilding the temple, or house of prayer, which the Lord had designated as a place of worship and encounter with Him. Within two years they became discouraged and quit building the house of prayer for 16 years. After this long delay, the Lord raised up two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to inspire them to commit themselves to God and His purposes with zeal.

18 년 전, 이스라엘은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로 그분이 지정하신 성전, 즉 기도의 집의 재건과 연관된 민족적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2 년도 못되어 그들은 낙심하여, 그 후 16 년 동안을 기도의 집 짓는 것을 그만 두었었다. 이 오랜 지연이 있던 뒤에 주님은 두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를 세워 그들로 다시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열심으로 헌신하도록 감화시키셨다.

- H. Israel repented and recommitted to work on the temple on September 22, 520 BC (Hag. 1:14-15). By November that year they were already drawing back, so Zechariah called them to repent (1:3). They responded quickly (1:6). Then three months later (Feb. 15, 519 BC), Zechariah received eight visions in one night (1:7-6:8). About two years later (Dec. 518 BC), he gave his third message (Zech. 7-8). This was 16 months before the temple was completed (Mar. 516 BC).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이스라엘은 회개하였고 주전 520 년 9 월 2 일에 성전을 짓는 일에 다시 헌신했다 (학 1:14-15). 그해 11 월 즈음에 그들이 벌써 물러섰을 때 스가랴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1:3). 그들은 이것에 빨리 반응했다 (1:6). 그리고 3 개월 후에(기원전 519 년 2 월 15 일), 스가랴는 하룻밤 사이에 8 개의 환상을 받게 된다 (1:7-6:8). 2 년여가 지난 후 (주전 518 년 12 월), 스가랴는 세번째 메세지를 전했다 (스 7-8 장). 이때가 성전이 완공되기 16 개월 전이었다 (주전 516 년 3 월).

- I. They were near the end of the four-year period that it took them to rebuild the temple and establish animal sacrifices and the singers and musicians necessary to keep the temple sanctuary.

그들은 거의 4 년의 기간이 다되어가는 때에 성전을 재건했고, 동물 제사를 바치게 되었고, 성전의 성소를 지키기에 필수인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자들을 배치하게 되었다.

**II. THE CONTEXT FOR ZECHARIAH 7-8**

**스가랴 7-8 장의 내용**

- A. The context for his third message (Zech. 7-8) was the visit of two men from the city of Bethel. They came to Jerusalem with questions about the necessity of fasting. They asked if they had to continue to honor the annual fasts, which had been initiated in response to the tragedies surrounding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Babylonian captivity (586 BC). They reasoned that since these fasts were not required in Moses' law and since the Jews were back in Jerusalem in a new season where God's promises were being fulfilled, they should not have to keep fasting.

스가랴의 셋째 메세지의 내용은 (스 7-8) 벤엘에서 온 두 사람의 방문이었다. 그들이 금식의 필요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 (주전 586 년) 와 관련된 비극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금식 절기들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들의 논쟁은 이 절기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며,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기에 금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 B. With the temple nearly finished, and in a new season of blessing, they felt that it was time to stop mourning over what they lacked and just to rejoice in what they had gained. This was one of the primary questions being asked throughout all Israel (7:3). It is the same question that is being asked by many in the Church today.

성전이 거의 완공되어 가면서 새로운 축복의 때로 접어들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결여되었던 것으로 인해 애통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인해 그저 기뻐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질문되었던 주요 질문 중 하나였다 (7:3). 이는 오늘날 교회의 많은 이들이 질문하는 동일한 것이다.

- C. God's answer came in four messages each indicated by, "The word of the Lord of Hosts came" (7:4, 8; 8:1, 18). His complete answer is found in combining all four exhortations (Zech. 7-8).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하나님의 대답이 각각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표기된 네개의 메세지로 임했다 (7:4, 8; 8:1, 18). 그의 완전한 대답은 네개의 권고들을 모두 합할 때 발견된다 (속 7-8 장).

1. The first two messages are *negative* (Zech. 7), calling them to repent, with warnings.

첫 두개의 메세지는 경고들과 함께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부정적 (속 7 장) 메세지이다.

2. The last two messages are *positive* (Zech. 8), giving them glorious promises that will cause the fasts to be turned to feasts when Israel is restored and Jesus lives in Jerusalem.

나머지 두개의 메세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주 하실 때 금식이 축제로 바뀔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는 긍정적 메세지 (속 8 장)이다.

- D. The Lord never answered their question directly, but left them to decide, after giving them His perspective that they only fasted to make their life more comfortable, rather than to encounter Him in deep relationship (7:5). He warned them that their fathers had approached Him that way too (7:7-14), with their focus on receiving circumstantial blessing without growing deep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end they had drawn back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becoming offended when the blessing didn't come in the way they thought it should. The Lord was asking them if it troubled them that they were asking the wrong question just like their fathers had.

주님은 절대로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주님을 더 깊은 관계속에서 만나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금식했던 것 (7:5)에 대한 주님의 견해를 제시하신 후에 그들이 결정을 하도록 남겨둔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선조들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성장이 없이 오직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되어 하나님께 다가갔었던 것에 대해 경고하셨다 (7:7-14). 끝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식으로 축복이 오지 않았을 때 실족했다. 주님은 그들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잘못된 질문이 요구되었을 때에 그것이 어려운지를 물으셨다.

- E. The message was a call to wholeheartedness (7:4-10) in response to God's zeal for them (8:1-2), and commitment to bless them (8:3-23), yet with warnings of judgment for rebellion (7:11-14). This message parallels Zechariah's first message when he called Israel to repentance (1:3), followed by an emphasis on God's zeal and blessing, yet with warnings of judgment (1:4-21).

그 메세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8:1-2)에 전심으로 반응하라는 (7:4-10) 부르심이며, 반역에 따른 심판의 경고들이 있지만 (7:11-14)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는 헌신 (8:3-23)에 관한 것이다. 이 메세지는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1:3), 후에 하나님의 열심과 축복에 대한 강조가 뒤따르며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포함한 스가랴의 첫번째 메세지와 평행을 이룬다 (1:4-21).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 F. Zechariah told them that the main point of fasting was to be sorry for their sins as they prayed for God's glory to be released in a greater measure in Jerusalem and, through them, to the nations.

스가랴는 더 큰 분량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열방에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금식의 주요 핵심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 G. The Lord did not answer their question on fasting directly but answered it by asking a question to highlight the principle that activities like fasting are effective only with a spirit of obedience. Fasting is nothing in itself if the one fasting does not have a genuine desire to know, love, and obey the Lord. Zechariah 7-8 highlights promises for the prayer movement and addresses the need for radical dedication to the Lord. God is restoring the grace for fasting with prayer.

주님은 금식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으나, 금식과 같은 행위들이 오직 순종의 영으로만 효과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반문 하심으로 저들에게 응답하셨다. 만약 금식하는 자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이 없다면 그 금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스가랴 7-8 장은 기도운동을 위한 약속들을 강조하고 주님을 향한 급진적인 헌신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이 기도와 함께하는 금식의 은혜를 회복하고 계신다.

### III. ISRAEL'S FOUR NATIONAL FASTS (8:19)

#### 이스라엘의 네 번의 국가적 금식 (8:19)

- A. The Jews in exile had instituted four fasts (8:19) to remember four tragic events related to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temple in 586 BC (2 Kgs. 25). The only fast that the Law of Moses required was on the Day of Atonement (Lev. 16:29; 23:27-32). The other four annual fasts were voluntary responses because of the tragic situation of the Babylonian captivity. Observant Jews have kept these four fasts since the fifth century BC and especially since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70 AD; most non-Orthodox Jews know about the Ninth of Av.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주전 586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와 (왕하 25) 관련된 네개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기 위해 네 개의 금식이 (8:19) 지정되었다. 모세의 율법에는 속죄일에 행하는 단 하나의 금식만이 요구되었다 (레 16:29; 23:27-32). 다른 네개의 연간 금식 절기는 바벨론 포로의 비극적 상황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주전 5 세기이래로 줄곧 이 네가지의 금식을 지켜오고 있으며, 특별히 주후 70 년의 성전파괴 이후 더 지켜오고 있다; 대부분의 정통파가 아닌 유대인들도 아빱월 9 일에 대해 알고 있다.

- B. ***Fast in the fourth month:*** Jerusalem's walls were breached by Babylon's army on the ninth day of the fourth month (Tammuz; 2 Kgs. 25:3-4; Jer. 39:2). The fast is remembered on the 17<sup>th</sup> day.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넷째 달의 금식:**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네번째 달 17 일에 붕괴되었다 (탈무드; 왕하 25:3-4; 렘 39:2). 이 금식은 17 일에 기념된다.

- C. ***Fast in the fifth month:*** The Temple in Jerusalem was burned (2 Kgs. 25:8-9). The most tragic day for Israel is the day the Temple was destroyed. According to the Talmud, on the very same day, the ninth day of the fifth month of Av (August), Solomon's temple was destroyed by the Babylonians in 586 BC, and Herod's temple (Zerubbabel's) by the Romans in 70 AD.

**다섯째 달의 금식:**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탔다 (왕하 25:8-9). 이스라엘에게 가장 비극적인 날은 성전이 파괴된 날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같은날, 다섯번째 아빕월 (8 월)의 9 일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 년에, 그리고 헤롯 성전 (스룹바벨의 것) 이 로마에 의해 주후 70 년에 파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D. ***Fast in the seventh month:*** This was to commemorate the assassination of Gedaliah (2 Kgs. 25:25; Jer. 41:2). Nebuchadnezzar made Gedaliah governor of Judah (2 Kgs. 25:22-25). Gedaliah respected and cared for Jeremiah (Jer. 39:11-14; 40:5) just as his father had done. He only reigned for two months, before he was killed by Jewish zealots led by Ishmael.

**일곱째 달의 금식:** 이 금식은 그달리야의 암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하 25:25; 렘 41:2).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다 (왕하 25:22-25). 그달리야는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예레미야를 존중했고 돌보았다 (렘 39:11-14; 40:5). 그는 단지 두달 동안만 유다를 다스렸고 이스마엘이 이끄는 유대인의 열성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 E. ***Fast in the tenth month:*** This was to remember the start of the siege of Jerusalem (2 Kgs 25:1).

**열째 달의 금식:** 이 금식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었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왕하 25:1).

#### IV. QUESTION FROM THE DELEGATION FROM BETHEL (7:1-3)

벧엘에서 온 대표단의 질문 (7:1-3)

- A. Men from Bethel come to Jerusalem to ask a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fasting (7:1-3). Four fasts had been instituted related to events (586 BC) that occurred about 70 years earlier.

벧엘에서 온 사람들은 금식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7:1-3). 네개의 금식은 70 년 전에 생긴 사건들과 (주전 586 년) 연관되어 지정된 것들이었다.

***<sup>1</sup>In the fourth year of King Darius [518 BC] it came to pass tha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Zechariah, on the fourth day of the ninth month, Chislev, <sup>2</sup>when the people [from Bethel] sent Sherezer, with Regem-Melech and his men, to the house of God, to pray before the LORD,***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sup>3</sup>and to ask the priests who were in the house of the LORD of hosts, and the prophets, saying, "Should I weep in the fifth month and fast as I have done for so many years?" (Zech. 7:1-3)

<sup>1</sup>다리오 왕 제사년 아홉째 달 곧 기슬래월 사일에 여호와와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sup>2</sup>그 때에 벧엘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sup>3</sup>단군의 여호와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오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슌 7:1-3)

1. **Fourth year:** This corresponds to December 518 BC; Chislew is a Babylonian name.

넷째 해: 이 해는 주전 518 년 12 월과 일치한다; 기슬래 월은 바벨론식 이름이다.

2. **People of Bethel sent:** A delegation from Bethel was sent to Jerusalem to ask a question about fasting. Sharezer and Regem-melech were Babylonian names. This suggests these men were born in Babylon in captivity. Bethel was about ten miles north of Jerusalem.

벧엘의 사람이 보냈다: 벧엘에서 온 대표단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다. 사레셀과 레겜멜렉은 바벨론식 이름들이다. 이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태어난 자들임을 시사한다. 벧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 마일 가량 떨어진 곳이다.

3. Almost all translations include the phrase "**of Bethel**" which is omitted by the KJV and NKJV—The people of Bethel had sent...(NIV); The town of Bethel had sent...(NAS); The people of Bethel had sent...(RSV); and The people of Bethel had sent (ESV).

거의 모든 영어 번역본들이 KJV 와 NKJV 에서는 생략 되어 있는 ‘벧엘에서’ 라는 문구를 포함한다 – 벧엘의 사람이.. 보내어... (NIV); 벧엘의 도시에서...(NAS); 벧엘의 사람이... (RSV); 벧엘의 사람이... (ESV).

## V. THE LORD'S REBUKE (7:4-7)

### 주님의 책망 (7:4-7)

A. The Lord rebuked the people and did not give them a direct answer to their question (7:4-7)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셨다 (7:4-7).

<sup>5</sup>Say to all the people of the land, and to the priests: "When you fasted and mourned in the fifth and seventh months during those seventy years, did you really fast for Me—for Me?"

<sup>6</sup>When you eat and when you drink, do you not eat and drink for yourselves? <sup>7</sup>Should you not have obeyed the words which the LORD proclaimed through the former prophets when Jerusalem and the cities around it were inhabited and prosperous?" (Zech. 7:4-7)

<sup>5</sup>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sup>6</sup>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sup>7</sup>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슌 7:5-7)

1. ***Seventy years:*** This refers to the seventy years of the Babylonian captivity (606-586 BC).

**70 년 :** 이 기간은 70 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생활를 나타낸다 (주전 606-586 년).

2. ***All the people:*** The Lord directed this message to all the people in Israel, not only to the delegation from Bethel; it was one of the primary questions in Israel in that day (7:5).

**온 땅의 백성:** 주님은 이 메세지를 벨엘에서 온 대표단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셨다; 이것이 그당시에 이스라엘에서의 주요 질문들중에 하나였다( 7:5).

3. ***Did you really fast for Me:*** The Lord answers that they had fasted in self-pity because of how difficult things were, not because of their distance from His heart and purpose.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로 인한 자기 연민에 기인한 금식을 해왔다고 대답하신다.

4. The Lord's response makes it clear that their question was not based on a genuine desire to understand God's heart and to please Him, but merely to avoid fasting. The Lord asked them who they were fasting for. Were they fasting to see more of God's glory in their life and nation or only because they wanted their circumstances to improve?

그들의 질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열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금식을 피해 보려는 것임을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로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주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위해 금식을 했는지를 물으셨다. 그들이 자신의 삶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위해서 금식했는가, 혹은 자신들의 삶의 상황들이 개선되기를 원했기에 금식했는가?

5. An important question being asked today concerns how we are to respond to His grace. Some are asking *how little* do they have to give to God because they have received grace. Others are asking *how much* they can give back to God because they have received grace. This question represents two very different approaches to our relationship with Jesus. In other words, how far do I *have to go* in my relationship with Jesus because of free grace? Or, how far *will He empower me to go* in my relationship with Jesus because of free grace?



오늘날 요구되는 중요한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어떤이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로 인해 얼마나 적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질문한다. 다른이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로 인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지를 질문한다. 이 질문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두가지 매우 다른 접근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하면, 거저받은 은혜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안에 내가 얼마나 멀리 가야만 하지? 아니면, 거저받은 은혜로 인해 예수님과의 관계안에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심으로 얼마나 멀리 나로 가게 하실까? 라는 질문의 차이에 있다.

6. Does Jesus' work on the cross *cancel* my need to love and pursue Him with all of my heart, or does it *empower* me to love and pursue Him with all of my heart?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추구하게 하는 나의 필요를 취소하는가, 아니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추구하도록 내게 힘을 더해 주시는가?

7. A foundational premise of the Christian life is to seek to love God with all our strength. To love God this way means to seek and serve Him with all our strength. We continually seek to give Him more, until we are confident that we love and serve Him with all our strength. God's grace empowers us to give "all" our strength to Jesus; this is the most reasonable response we can give to His worthiness. (Rev. 5:9-12).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인 전제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온 힘으로 그를 구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더 드리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우리의 온 힘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그의 존귀함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이다 (계 5:9-12).

8. A key issue today is the nature of grace and how it works in us and what it produces in us. It includes defining the nature of "the rest" that He gives. He calls us to rest from seeking to earn his love and to cease striving to live with agendas outside His will. By His grace we rest from these two things—we rest from our own works of seeking to earn God's love and from pursuing fleshly activities in our life that are outside His will.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오늘날의 핵심 주제는 은혜의 본질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며 우리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는가이다. 이는 주님이 주시는 '쉼'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분은 우리로 주의 사랑을 얻으려고 구하는 것으로부터 쉬며, 주님의 뜻 밖에 있는 우리의 계획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중단하라고 하신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이 두가지로부터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구하는 일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육체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것에서 쉬게 된다.

9. ***Eat and drink:*** In both their fasts and feasts they focused on themselves without regard for their relationship with the Lord or His larger purposes for their nation. Whether in times of fasting with mourning or in feasting with celebration, the same issue is key.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은 금식의 때와 절기의 때 모두 그들과 주님과 관계나, 그분의 열방을 향한 큰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들에게만 초점을 두었다. 애통함으로 금식하는 때이든, 축제의 절기의 때이든 동일한 주제가 핵심인 것이다.

- a. Their national feasts were to be a time to remember God's goodness with gratitude. Their holy days became merely holidays where they enjoyed food and recreation without taking time to rededicate themselves to God.

그들의 국가적 절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거룩한 날들은 거의 하나님께 자신들을 재헌신하는 시간을 갖는 대신에 음식과 오락을 즐기는 공휴일이 되었다.

- b. Fasting and feasting are both to be based on the same value of desiring a deeper relationship with God. Fasting was not just about obtaining blessings to make their life easier and feasting was not just getting time off for more recreation. They viewed the feasts as time off from God, instead of it being a day to draw closer to Him.

금식과 절기 모두 같은 가치에 기반을 두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갈망이다. 금식은 그들의 삶을 쉽게 하려고 단지 축복을 획득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기는 더 오락하기위해 단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절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로 여기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쉬는 시간으로 여겼다.

10. ***Should you not have obeyed:*** They should have obeyed the words of the prophets that were given to Jerusalem in times of prosperity. Their forefathers did not understand that the season of prosperity had been given to them to motivate them into wholeheartedness. They were perpetuating the same error for which the prophets corrected their forefathers.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들은 변영의 시기에 예루살렘에 주어진 선지자들의 말들을 청종했어야 했다. 그들의 조상은 형통의 계절이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고쳐 주었던 동일한 실수를 그대로 영속시켰다.

## VI. THE COMMAND TO REPENT (7:8-14)

### 회개의 명령 (7:8-14)

- A. Zechariah summarized the message of the prophets, calling for justice, mercy, and compassion, and for Israel to never oppress the weak nor make plans to do evil. We express our love to God by loving people. The Lord calls for fasting that is rooted in obedience and results in loving people. He describes the life that agrees with seeking God in fasting and prayer for breakthrough.

스가랴는 정의와 자비와 긍휼의 부르심과, 이스라엘로 절대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선지자들의 메세지를 요약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주님은 순종에 뿌리박히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신다. 그는 돌파를 위해 금식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동의하는 삶을 묘사한다.

***<sup>9</sup>Execute true justice, show mercy and compassion everyone to his brother. <sup>10</sup>Do not oppress the widow or the fatherless...let none of you plan evil in his heart against his brother. (Zech. 7:9-10)***

<sup>9</sup>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sup>10</sup>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슌 7:9-10)

- B. Their forefathers neglected to obey and it resulted in God's judgment (7:11-14). Since they refused to listen when the Lord called, so He refused to listen when they called (Jer. 11:11).

그들의 조상이 순종을 등한시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 (7:11-14). 주님이 부르실 때 청종하기를 거절했기에 주님도 그들이 부를 때 듣기를 거절하셨다 (렘 11:11).

***<sup>11</sup>“They refused to heed, shrugged their shoulders, and stopped their ears so that they could not hear...<sup>13</sup>They would not hear, so they called out and I would not listen,” says the LORD of hosts. <sup>14</sup>“But I scattered them with a whirlwind among all the nations...Thus the land became desolate after them...for they made the pleasant land desolate.” (Zech. 7:11-14)***

<sup>11</sup>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sup>13</sup>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sup>14</sup>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슌 7:11-14)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1. ***The Lord scattered them:*** God released His judgment on the people by scattering them among all the nations.

주님이 그들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열방 가운데 흩으심으로 그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풀어 놓으셨다.

2. ***The land became desolate:*** God released His judgment on the land, making it desolate.

이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분의 심판을 그 땅에 풀으셨고, 황폐하게 만드셨다.

- C. God judged them by refusing to answer their prayer as the crisis increased. It started with the Babylonian siege and escalated to the capture of Jerusalem. For twenty years the Babylonian oppression steadily increased, eventually resulting i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하나님은 위기가 증가될 때 그들의 기도 듣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위로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는 것으로 가속화되었다. 20 년동안 바벨론의 압제가 점차 증가되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VII. THE FULLNESS OF BLESSING COMING TO JERUSALEM (8:1-17)

### 예루살렘에 임할 충만한 축복 (8:1-17)

- A. Zechariah continues the message that was started in Zechariah 7. In Zechariah 8, the Lord set before Israel their future destiny and restoration in the millennial kingdom. The restoration in Zechariah's day was a foreshadowing of a future greater blessing to come to Israel.

스가랴는 스가랴 7 장에서 시작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간다. 스가랴 8 장에서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운명과 천년 왕국에서의 회복을 그들 앞에 보이신다. 스가랴가 살던 때의 회복은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더 큰 축복의 징후였다.

- B. The message of Zechariah 7 was to repent, seek God, and live godly *to avoid judgment*. The message of Zechariah 8 was to repent, seek God, and live godly *to receive future blessing*.

스가랴 7 장의 메시지는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스가랴 8 장의 메시지는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 C. In Zechariah 8 we see two main messages with ten distinct themes, each introduced by "Thus says the Lord" (8:2, 3, 4, 6, 7, 9, 14, 19, 20, 23).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스가랴 8 장에서 10 개의 다른 주제와 함께 2 개의 주요한 메세지가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으로 각각 소개된다 (8:2, 3, 4, 6, 7, 9, 14, 19, 20, 23).

- D. God's promises for Israel and all His people are rooted in revelation of His zeal (8:2). Thi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self-revelations of God in Scripture. The revelation of His zeal relates here to restoring the grace of fasting with prayer for the full blessing on Israel. When we see God's emotions, it motivates us to pray with fasting for the fullness of His purpose.

이스라엘과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주님의 열심에 대한 계시 안에 뿌리 박혀있다 (8:2). 이것이 말씀에서 가장 능력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 중 하나이다. 여기에 나타난 그분의 열심에 대한 계시는 이스라엘에게 충만한 축복이 부여하기를 기도하며 금식하는 은혜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될 때, 이것이 그분의 목적을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sup>2</sup>*I am zealous for Zion with great zeal; with great fervor I am zealous for her. (Zech. 8:2)*

<sup>2</sup>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스 8:2)

1. Zechariah had been commissioned with a specific message to proclaim about God's zeal (1:14). Now, two years later, he repeats it for emphasis in Zechariah 8:2.

스가랴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구체적인 메세지를 선포하도록 보내졌다 (스 1:14). 이제, 2 년이 지난 후, 그가 스가랴 8:2 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한다.

<sup>14</sup>*Thus says the LORD of hosts: "I am zealous for Jerusalem..." (Zech. 1:14)*

<sup>14</sup>...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스 1:14)

2. Jesus has zeal for Jerusalem. Thus, we engage our hearts with His purpose for this city. Jesus wept over Jerusalem because of her rebellion against God (Mt. 23:37) In Ezekiel's day, God spared the intercessors who mourned over Jerusalem's sin (Ezek. 9:4-6). The Lord promises to prosper any who will love and pray for Jerusalem.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도시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맞선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다 (마 23:37). 에스겔의 때에, 예루살렘의 죄를 위해 애통하는 중보자들을 남겨 두셨다 (겔 9:4-6). 주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형통을 약속하셨다.

<sup>6</sup>*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ey prosper who love you..." (Ps. 122:6)*

<sup>6</sup>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 122:6)

3. God promises to bless the godly by comforting and restoring Jerusalem. He exhorts the Gentiles to rejoice with Jerusalem and not be disengaged, critical, or envious (Isa. 66:10). Rejoicing or engaging with her is essential to participating with her blessings (Isa. 66:11).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심으로 경건한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닫거나, 비판적이거나, 또는 시기적이지 말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권고하신다 (사 66:10).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이 도시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 66:11).

***<sup>10</sup>Rejoice with Jerusalem, and be glad with her, all you who love her; rejoice for joy with her, all you who mourn for her; <sup>11</sup>that you may feed and be satisfied with the consolation of her bosom... be delighted with...her glory. (Isa. 66:10-11)***

<sup>10</sup>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sup>11</sup>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너럭히 빨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사 66:10-11)

4. The revelation of God's zeal was Zechariah's core message. God's burning desire is for His people and purpose. It is manifest in Jesus as an affectionate Bridegroom, powerful King, and righteous Judge who intervenes to remove everything that hinders love.

스가랴의 핵심 메세지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계시였다.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은 그의 백성과 목적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사랑 많으신 신랑과 능력의 왕,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주로 나타난다.

5. The message of God's zeal is given to awaken our zeal for God. Jesus told the church of Laodicea that they must repent and be zealous because He loved them. He pointed back to Zechariah 8:2, linking His love, zeal, and repentance just as Zechariah preached it.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메세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깨우기 위해 주어진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스가랴 8:2 절을 가리키시며 스가랴가 설교했듯이 그의 사랑과 열심, 그리고 회개를 연결하신 것이다.

***<sup>19</sup>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Therefore be zealous and repent. (Rev. 3:19)***

<sup>19</sup>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3:19)

- E. The Lord will live in Jerusalem (8:3) just as Zechariah prophesied earlier (1:16; 2:10). Jesus referred to Jerusalem as the city of the great King (Mt. 5:35). The nations will call Jerusalem the City of Truth, and the temple mount will be called the Holy Mountain. Jesus' throne will be there, making Jerusalem the epicenter of God's activity throughout the millennial earth (Isa. 2:2-4).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스가랴가 일찌기 예언하였듯이 (1:16; 2:10) 주님은 예루살렘에 사시게 될 것이다 (8:3).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장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 언급하셨다 (마 5:35). 열방은 예루살렘을 진리의 도시라고 부를 것이고 성전의 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을 것이며, 천년 왕국동안 이땅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어질 것이다 (사 2:2-4).

<sup>3</sup>***“I will return to Zion, and dwell in the midst of Jerusalem. Jerusalem shall be called the City of Truth, the Mountain of the LORD of hosts, the Holy Mountain.” (Zech. 8:3)***

<sup>3</sup>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슌 8:3)

- F. Jerusalem will be a city that is perfectly safe without any fear, crime, or war (8:4-5). Elderly people will sit in the streets, and children will play in them without fear. Isaiah described people living to a great age, even for hundreds of years, being as “old as a tree” (Isa. 65:20, 25).

예루살렘은 어떤 두려움이나 범죄나, 전쟁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다 (8:4-5). 늙은이들은 거리에 앉을 것이고, 아이들은 두려움없이 놀 것이다. 이사야는 심지어 “아주 오래된 나무”처럼 몇 백년의 나이로 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묘사했다 (사 65:20, 22, 25).

<sup>4</sup>***“Old men and old women shall sit in the streets of Jerusalem, each with his staff in his hand because of great age. <sup>5</sup>The streets of the city shall be full of boys and girls playing in its streets.” (Zech. 8:4-5)***

<sup>4</sup>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sup>5</sup>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슌 8:4-5)

- G. These blessings seemed too good to be true to the people of Zechariah’s day (8:6). This is a parenthetical statement describing how the people found it hard to believe Zechariah’s words.

스가랴의 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은 사실로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다 (8:6). 스가랴의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 어려워했는지를 괄호 안에 나타냈다.

<sup>6</sup>***“If it is marvelous [too good to be true] in the eyes of the remnant of this people in these days, will it also be marvelous in My eyes?” says the LORD of hosts. (Zech. 8:6)***

<sup>6</sup>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 [사실이라고 믿기에 너무 좋은] 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슌 8:6)

- H. The Lord promised to bring His people back to Jerusalem (8:7-8). This will be a total reversal of the scattering that Israel has suffered. Israel’s national conversion will result in the people enjoying covenant relationship with Him as His people. The Jewish exiles coming home from Babylon and Assyria returned mostly from the east or north. It was only after Israel’s dispersion by the Romans in 70 AD that they returned from the west. This greatly accelerated in 1948.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주님이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8:7-8). 이것은 흩어져 고통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반전의 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개종은 그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그와의 언약의 관계를 즐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대인의 포로들이 바벨론과 앗수르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이 동쪽이나 북쪽에서 왔다. 주후 70 년에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흩어졌을 때에만 그들이 서쪽에서 돌아왔다. 이것이 1948 년에 크게 가속화되었다.

<sup>7</sup>*“Behold, I will save My people from the land of the east and from the land of the west;*

<sup>8</sup>*I will bring them back, and they shall dwell in the midst of Jerusalem. They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in truth and righteousness.” (Zech. 8:7-8)*

<sup>7</sup>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로 <sup>8</sup>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슌 8:7-8)

- I. The promises in Zechariah 8:1-8 gave them motivation for wholehearted obedience (8:9-10). The phrase “these days” (8:9, 15) “this people” (8:11b, 12e) refers to the people in Zechariah’s generation who were asking the question about fasting.

스가랴 8:1-8 절의 약속은 그들이 전심으로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8:9-10). “이 때에” (8:9, 15) 와 “이 남은 백성” (8:11b, 12e) 의 구절은 금식에 관해 질문했던 스가랴 세대의 사람들을 말한다.

<sup>9</sup>*Let your hands be strong, you who have been hearing in these days these words by the mouth of the prophets, who spoke in the day the foundation was laid for the house of the LORD of hosts, that the temple might be built. <sup>10</sup>For before these days there were no wages for man nor any hire for beast; there was no peace from the enemy for whoever went out or came in; for I set all men, everyone, against his neighbor. (Zech. 8:9-10)*

<sup>9</sup>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sup>10</sup>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삿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삿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슌 8:9-10)

1. ***Be strong:***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called them to be strong so as to finish building the temple (Hag. 2:4). Zechariah told them three times to be strong (8:9, 13, 15).

견고히 하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 견고하도록 그들을 부른다 (학 2:4) 스가랴는 그들에게 세번이나 견고하라고 말했다 (8:9, 13, 15).

2. ***The foundation was laid:*** Israel laid the foundation twice, 18 years apart. The first time was in 536 BC (Ezra 3:8-10). But hindrances came and they quit working on the temple for 16 years. This verse (8:8) refers to the second time the foundation was laid in 518 BC.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지대를 쌓음:** 이스라엘은 18년 차이로 지대를 두번 쌓았다. 첫번째가 주전 536년 이었다 (스 3:8-10). 그러나 방해가 나타났고 그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그만 두었다. 이 성경구절 (8:8)이 주전 518년에 두번째 지대가 쌓은 때를 말하고 있다.

3. **No wages:** During the 16-year delay, the Lord sent an economic crisis with a drought (Hag. 1:6-11; 2:15-19). He told them to compare their economic condition before they began working on the temple to their present condition. They were in a new season in which the Lord promised “from this day will I bless you” (Hag. 2:18-19).

**값을 얻지 못함:** 16년 간의 지연동안, 주님이 기근과 함께 경제적 위기를 주셨다 (학 1:6-11; 2:15-19). 주님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의 그들의 경제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새로운 시즌에 있었다 (학 2:18-19).

**“You have sown much, and bring in little...and he who earns wages, earns wages to put into a bag with holes...<sup>9</sup>You looked for much, but indeed it came to little; and when you brought it home, I blew it away...because of My house that is in ruins, while every one of you runs to his own house...<sup>11</sup>I called for a drought on the land.” (Hag. 1:6-11)**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값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sup>9</sup>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팠랐음이라...<sup>11</sup>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 1:6-11)

4. **No peace:** There was no peace from the enemy, including foreigners (Ezra 4:1-5) and fellow Jews (their neighbors). There was civil strife as men stood against their neighbors.

**평안이 없음:** 그곳에는 외국인들 (스 4:1-5)과 동료 유대인들 (그들의 이웃)을 포함한 적들에 의해 평안이 없었다. 이웃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 갈등도 있었다.

- J. God promised to bless the economy and agriculture and stop the drought (8:11-12; Hag. 2:19). Zechariah both rebuked (7:5) and encouraged (8:9-12, 14) the people in his own generation.

하나님이 경제와 농경을 축복하시고 기근을 멈추신다고 약속하셨다 (8:11-12; 학 2:19). 스가랴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책망과 (7:5) 격려를 (8:9-12, 14) 함께 했다.

**<sup>11</sup>“But now I will not treat the remnant of this people as in the former days...<sup>12</sup>For the seed shall be prosperous, the vine shall give its fruit, the ground shall give her increase, and the heavens shall give their dew—I will cause the remnant of this people to possess all these.” (Zech. 8:11-12)**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sup>11</sup>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sup>12</sup>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속 8:11-12)

- K. God will save Israel and Judah and cause them to be a blessing to the nations (8:13, 7; Gen. 12:3). There will be a worldwide reversal of the curse in the Millennium.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로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8:13, 7; 창 12:3). 천년 왕국동안 전 세계적인 저주의 대역전이 있을 것이다.

<sup>13</sup> ***“It shall come to pass that just as you were a curse among the nations, O house of Judah and house of Israel, so I will save you, and you shall be a blessing.”*** (Zech. 8:13)

<sup>13</sup>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속 8:13)

- L. God's zeal is seen in His determination to both do good to and discipline Israel (8:14-15). It is important to see both expressions of His zeal in order to understand His end-time plans for Israel.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훈련하시겠다는 그분의 결심에서 찾을 수 있다 (8:14-15).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때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열심의 두가지 표현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sup>14</sup> ***“Just as I determined to punish you when your fathers provoked Me to wrath,” says the LORD of hosts, “and I would not relent, <sup>15</sup>so again in these days I am determined to do good to Jerusalem and to the house of Judah. Do not fear.”*** (Zech. 8:14-15)

<sup>14</sup>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sup>15</sup>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속 8:14-15)

- M. Zechariah emphasized both sides to Israel receiving God's blessing in his generation (8:14-17)—God's role in determining to do good “in these days” (8:14-15) and Israel's in obeying (8:16-17). In light of God's great promises, the people should speak with truth, do justice, and bring peace in their community life. This is a repetition of the exhortation to godliness given in 7:9-10.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 두가지 양면을 다 강조하였다 (8:14-17) – 하나님의 역할은 “이 날들에” 선을 행하시기로 뜻을 정하시는 것이고 (8:14-15) 이스라엘의 역할은 순종하는 것이다 (8:16-17). 하나님의 크신 약속에 비추어 볼때 그 백성들은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행하며 그들의 공동체에 평안을 가져와야 했다. 이것이 스가랴 7:9-10 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삶으로 권고하는 것의 반복이다.

<sup>16</sup> ***“These are the things you shall do: speak each man the truth to his neighbor; give judgment in your gates for truth, justice, and peace; <sup>17</sup>Let none of you think evil in your heart against your neighbor; do not love a false oath. All these are things I hate.”*** (Zech. 8:16-17)

<sup>16</sup>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sup>17</sup>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속 8:16-17)

- N. He described the lifestyle that agrees with seeking God with fasting and prayer for breakthrough. We are to use our resources as an expression of our loyalty and love for God and His purpose. We express our love to God by loving people. The Lord calls for fasting that is rooted in obedience that results in our loving people.

그가 돌파를 위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는 삶의 방식을 묘사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는 순종에 뿌리 내리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신다.

### VIII. JESUS WILL BE EXALTED IN THE NATIONS FROM JERUSALEM (8:18-23)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8:18-23)

- A. The Lord only gave a partial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fasting (7:5). He now returns to this question, thus showing that this was the subject that He was addressing throughout Zechariah 7-8. The fast days of the past will be feasts in the future, as Israel experiences the fullness of salvation.

주님은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단지 부분적으로만 대답하셨다 (7:5). 이제 주님이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옴을 통해 이것이 스가랴 7-8 장에 걸쳐 주님이 이야기하려 했던 주제였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해 나감에 따라, 지난날의 금식의 날들이 미래에는 절기(축제)의 날들이 될 것이다.

***<sup>19</sup>The fast of the fourth month, the fast of the fifth, the fast of the seventh, and the fast of the tenth, shall be...cheerful feasts for the house of Judah. Therefore love truth and peace. (Zech. 8:19)***

<sup>19</sup>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속 8:19)

- B. ***Therefore love truth and peace:*** Truth and peace will so fully triumph; Our fasting should focus on these and not just on enriching our personal circumstances (7:5).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이 온전히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개인적인 물질의 부요함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7:5).

- C. God's zeal is for the supremacy and glory of His Son, who will be worshiped by all the nations from Jerusalem (2:11; 8:20-23; 14:16-18). This will be a result of Jesus living Jerusalem (8:3).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하나님의 열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열방에 의해 경배를 받으실 그분의 아들의 우월성과 영광을 위한 것이다 (2:11; 8:20-23; 14:16-18).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시는 결과가 될 것이다 (8:3).

<sup>20</sup>*“Peoples shall yet come, inhabitants of many cities; <sup>21</sup>the inhabitants of one city shall go to another, saying, ‘Let us continue to go and pray before the LORD, and seek the LORD of hosts. I myself will go also.’ <sup>22</sup>Yes, many peoples and strong nations shall come to seek the LORD of hosts in Jerusalem, and to pray before the LORD.” (Zech. 8:20-22)*

<sup>20</sup>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sup>21</sup>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던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sup>22</sup>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슌 8:20-22)

- D. All will come to Jerusalem to worship Him (14:16-18). This is what God ultimately desires—the supremacy of Jesus and all nations loving Him with the zeal with which He loves them. This is His big-picture purpose that will be accomplished in history; it makes sense for us to do it now.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14:16-18). 예수님의 우월성과 열방을 사랑하는 열심을 품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갈망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야 될 주님의 큰 그림이고 목적이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다.

<sup>16</sup>*Everyone who is left of all the nations...shall go up from year to year to worship the King...*

<sup>17</sup>*Whichever of the families of the earth do not come up to Jerusalem to worship the King, the LORD of hosts, on them there will be no rain. (Zech. 14:16-17)*

<sup>16</sup>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sup>17</sup>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슌 14:16-17)

- E. People from all nations will come to Jerusalem to worship Jesus and see His glory (Isa. 66:18).

모든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사 66:18).

<sup>18</sup>*“I will gather all nations [Gentiles] and tongues; and they shall come and see My glory...*

<sup>19</sup>*I will send to the nations...who have not heard My fame nor seen My glory. And they shall declare My glory among the Gentiles. <sup>20</sup>Then they [Gentiles] shall bring all your brethren for an offering to the LORD out of all nations...to My holy mountain Jerusalem. (Isa. 66:18-20)*

<sup>18</sup>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sup>19</sup>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빨과 활을 당기는 룯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못 나라에 전파하리라 <sup>20</sup>그들이 [이방인]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사 66:18-20)

- F. Jerusalem will be the epicenter of blessing in millennial kingdom.

스가랴서: 마지막때에 대한 연구 - 마이크 비클

Session 8 Fasting, Feasting, and God's Zeal (Zech. 7:1-8:23)

제 8 장: 금식, 축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스가랴 7:1-8:23)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에서 축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sup>2</sup>*All nations shall flow to it [Jerusalem]. <sup>3</sup>Many people shall...say, "Com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He [Jesus] will teach us...for out of Zion shall go forth the law,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Isa. 2:2-3)

<sup>2</sup>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예루살렘] 모여들 것이라 <sup>3</sup>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 2:2-3)

- G. Many Gentiles will grasp the sleeve of a Jewish man, not to persecute them, but to ask to accompany them because God's blessing so obviously rests on him. Jesus' glory will be so apparent in Jerusalem that all the nations will go to Him

많은 이방인들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을 것인데, 이는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에게 있기에 그와 동행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너무나 현저하게 거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sup>23</sup>*"In those days ten men from every language of the nations shall grasp the sleeve of a Jewish man, saying, 'Let us go with you, for we have heard that God is with you.'*" (Zech. 8:23)

<sup>23</sup>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슌 8:23)